



교육감으로써 저의 첫 주를 반추하며

친애하는 학부모 및 동료 여러분께,

지난 주, 저는 뉴욕시공립학교 교육감으로써 첫 주를 활기차고 깊은 감동을 받으며 보냈습니다. 저는 다섯 개 보로 전역의 학교들을 방문하여 학생, 직원, 가정 및 커뮤니티 멤버들을 만나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.

지난 월요일 날, 저는 제가 2000 년 대 초반에 수업을 했던 브롱스에 위치한 PS/MS 194 의 교실을 방문하여, 저의 학생이었던 Abdulla 의 방문을 포함하여 몇 몇의 친숙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. 제가 교육했던 학생의 방문은 특히나 감명 깊었습니다. Abdulla 가 제 학생이었을 때, 학교에서의 소속감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. 당시 저는 축구를 하고 함께 달리기를 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. 제 방문에서 공유해준 바에 따르면, 이런 작은 순간들이 Abdulla 가 존재하고 이해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.

이런 경험이 지속적으로 오늘날 저희의 과업에 대한 제 생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학생 지원, 양육적인 환경 및 높은 수준의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수업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이끌고자 노력할 것입니다. NYCPS 교육자이자 20 년 이상 리더로 재직하고 두 명의 NYCPS 학생의 자랑스러운 부모로서,

저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학업적으로 수준 높으며 진정으로 융합된 학교에서 배울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. 최근 제가 전해 드린 [가정에 보내는 메시지](#)에서 이들 중점 분야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저는 우리 학생들(현재 본인의 멋진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Abdulla 처럼 말입니다!) 이 밝고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.

함께 나가며,

카마르 H. 새뮤얼스

교육감 배상

더 많은 뉴스 및 리소스는 [모닝 벨](#)에서 확인하시거나 온라인 [페이스북](#), [인스타그램](#), [X](#), 및 [유튜브](#)에서 NYCPS 를 팔로우 하십시오.

NYCPS 가정: 더이상 이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, [수신 취소](#)를 하십시오.